

— S-317 —

Fluconazole 치료 후 재발한 coccidioides 뇌막염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에이즈 연구소

*최석훈 · 김창오 · 한상훈 · 진범식 · 이한성 · 김명수 · 정수진 · 최희경 · 서용성 · 남동혁 · 최준용 · 송영구 · 김준명

Coccidioidomycosis는 국내에서 드문 감염성 질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13 증례가 보고되어 있다. 다수는 폐를 침범한 coccidioidomycosis이고 그외 피부나 골에 침범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해외 여행력이 있는 뇌막염을 동반한 coccidioidomycosis 환자를 fluconazole로 치료하였으나 재발하여 voriconazole로 치료 중인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30세 남환이 내원 5개월 전부터의 발열 및 오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9개월 전부터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거주하였고 내원 5개월 전에 기침 및 발열 증세가 있었고 기침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두통증세가 나타나서 내원하였다. 뇌척수액 검사상 WBC: 363/ul(Monocyte: 98%, PMN: 2%), protein: 168.7 mg/dl, glucose: 21 mg/dl이었다. 그람 염색, 항산균 염색에서 균주가 보이지 않았고 세균, 결핵 그리고 진균 배양 검사에서 자라는 균주는 없었으며 India ink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Tb PCR, HSV PCR, Fungus PCR이 모두 음성이었다. 뇌척수액 혈청 검사에서 coccidioides 양성 소견이 나타나서 coccidioides 뇌막염으로 진단 후에 Fluconazole 사용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에 fluconazole 사용 후 13개월 후에 재발 소견이 나타나서 현재 voriconazole 사용하며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 S-318 —

안구 침범에 의한 실명을 동반한 개회충 감염증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에이즈 연구소

*진범식 · 서용성 · 정수진 · 최희경 · 최석훈 · 한상훈 · 이한성 · 김창오 · 김명수 · 최준용 · 송영구 · 김준명

27세 남환이 우안의 실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전에 수회에 걸쳐 소의 생간을 섭취한 이력이 있었으나 이외 다른 동물과의 접촉력은 뚜렷하지 않았다. 환자는 우안의 시력저하를 주소로 타병원 안과 내원, 망막 부종 소견 보여 추가검사 권유하였으나 자의로 시행하지 않고 지내던 중 전원 1주일전 다시 안과에 내원 시각신경유두주위로 7mm 크기의 종괴 소견 보여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12,850 cells/mm³, 혈색소 15.4g/dL, 혈소판 500,000/mm³소견 보였으며 호산구 분획이 34.9% (4,480 cell/mm³)로 증가된 소견 보이고 안구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타 조직으로의 침범이 없는 직경 5.4mm의 조영증강을 동반한 편평한 종괴가 우측안구 안저 시각신경유두주위에 관찰되었다. 기생충 감염에 의한 호산구증가증 의심하에 대변 총란 검사 및 간흡충, 폐흡충, 분선충, 낭미충 및 독소포자충에 대해 시행한 혈액효소면역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나 혈액에서 개회충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상 양성(sample to cutoff ratio 1.5) 소견 보여 안구를 침범, 실명을 초래한 개회충증 진단하에 prednisolone 60mg, albendazole 800mg 투여 시작하였다. 환자는 투약후 호산구증가증 정상화 되었으며 7주간 albendazole투여후 특별한 이상없이 치료 종결하였다.